

저자: E. Duncan Hughes

삽화: Byron Unger, Lazarus

각색: M. Maillot, Tammy S.

번역: Eun Ji Shim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07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명령을 주셨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지 보기 위한
시험이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의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 그의
아들을 희생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매우 사랑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이해하지 못 할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웠다.
아침에 그는 희생의 제물인
이삭과 두 하인들과 함께
출발했다.



떠나기 전,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 조각을 쪼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복종하기로 계획했다.





삼일 후 그들은 산 가까이에
갔다. "여기서 기다려라,"
아브라함은 그의 하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가서 번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삭은 나무를
운반하였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운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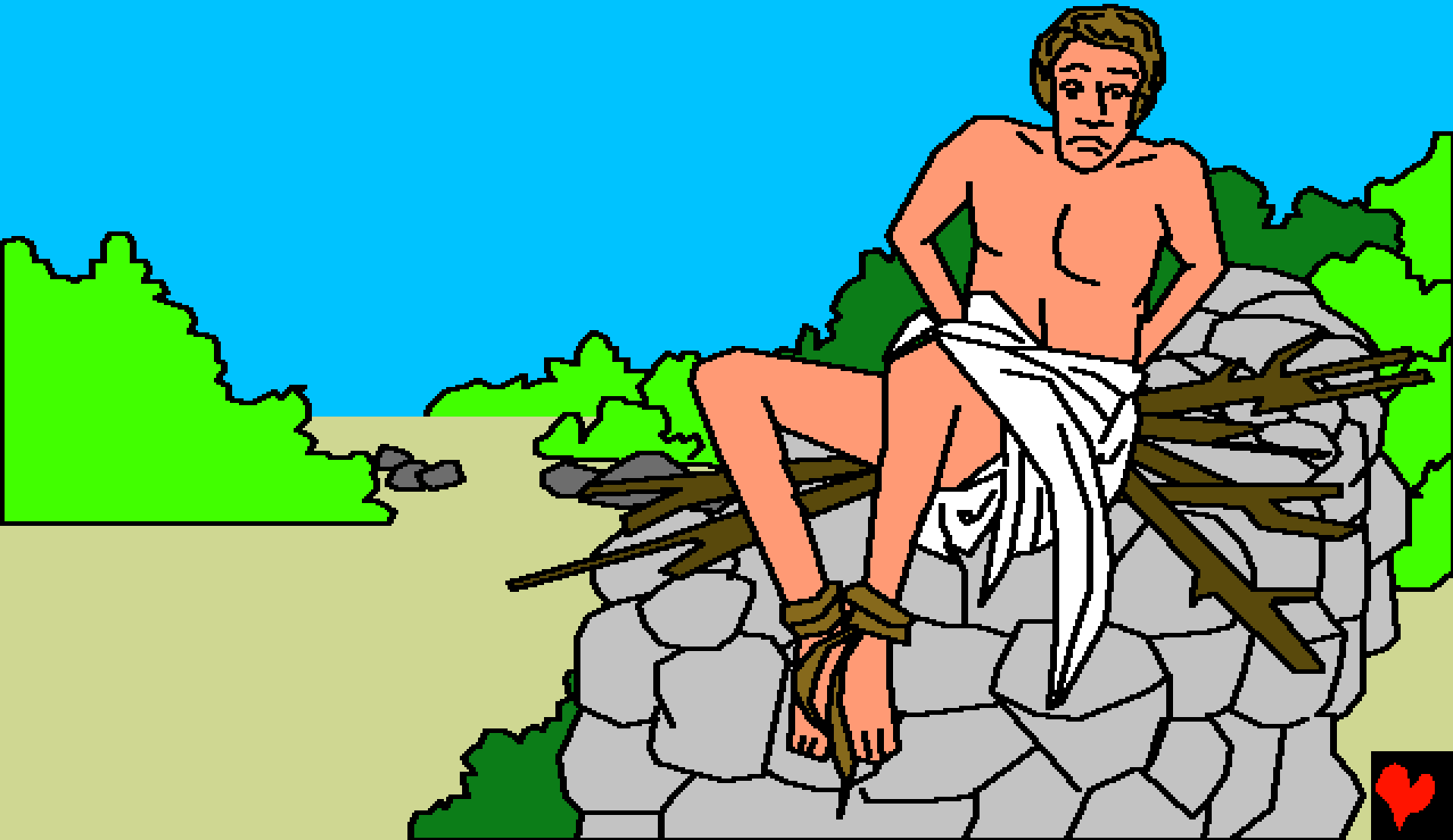
“번제를 위한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질문하였다.
“하나님께서서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로 왔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했다. 아브라함은 수 많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확실히 이번 번제가 가장 힘든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 위에 놓았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외아들, 소중한 이삭을 희생하려고 했을까?





그렇다! 아브라함이 칼날을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은 반짝였다. 그의 마음은 부서졌을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멈춰!”
하나님의
천사가
외쳤다.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너는
나에게 너의
외아들을
희생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덤불 속에 있는 숫양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풀고 대신에 양을 제물로 드렸다. 아마 이삭은 "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셨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모든
나라들은 너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며 축복 받을 것이다.”

훗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집으로 돌아왔다. 머지않아 슬픔이 찾아왔다. 사라가 죽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잃었고 이삭은 어머니를 잃었다.



장례식 후, 아브라함은 그의 우두머리 하인을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보냈다. 하인은 그들의 옛 고향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들 중에서 아내를 찾기 위해 갔다.



하인은 어떤 신호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의 낙타들을 위해 물을 주는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즉시 리브가는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친척들 중 하나였다. 하인은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을 알았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을 떠났다.
그녀는 이삭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그를 위로하여 힘을
얻게 하였다. 이삭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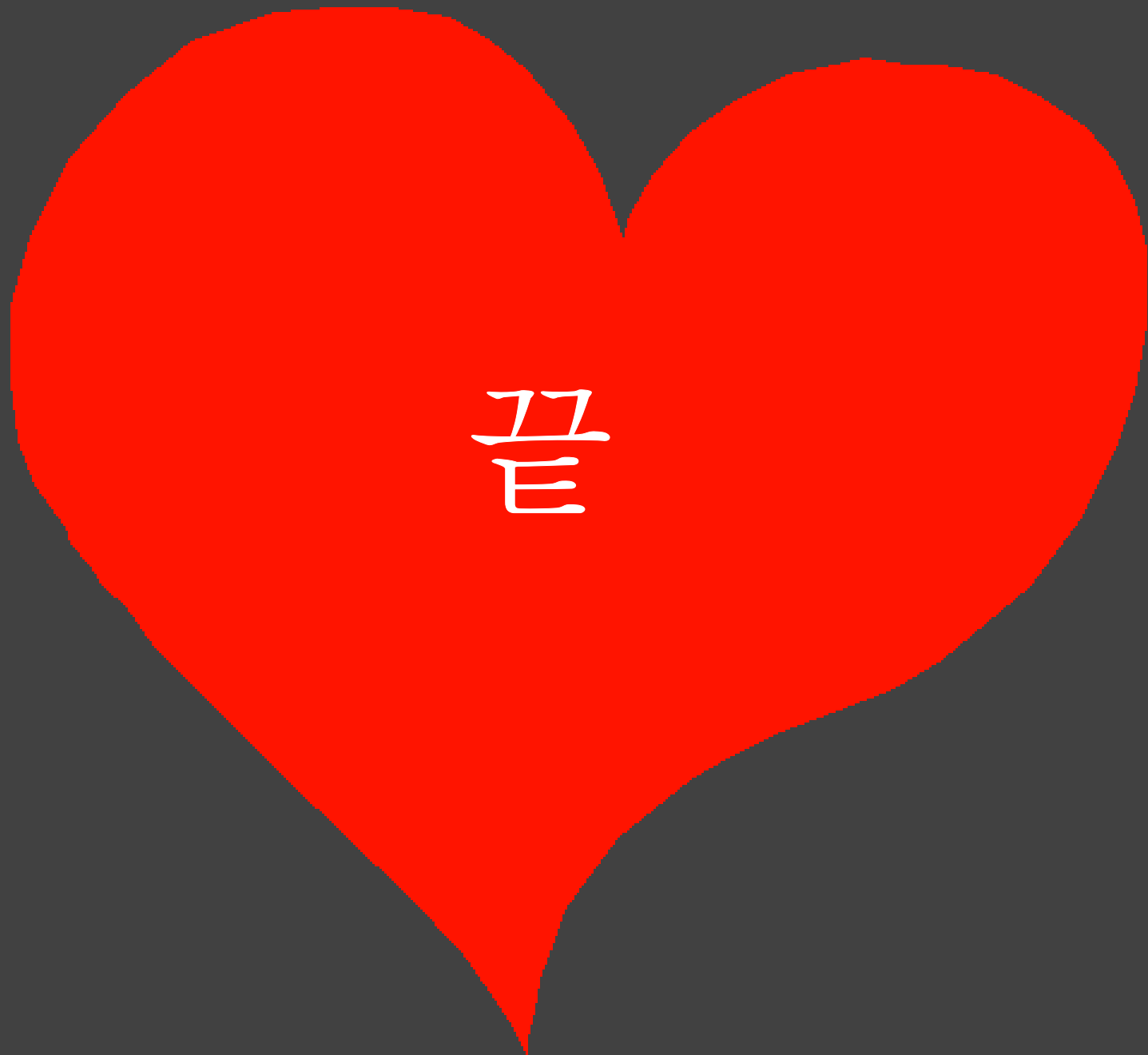
인간의 비애의 시작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24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